

차분한 수능...가족·친구에 반려건까지 '조용한 응원'

엔데믹 후 첫 수능...광주·전남 표정

광주·전남 고3 수험생들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렀다.

16일 광주·전남지역 교사들 주변에서는 수험생이 교사들과 후배들의 열띤 응원을 받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차분하게 제자를 응원하는 교사들의 모습과 차량 안에서 교사장으로 들어가는 자녀의 뒷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부모들의 차창으로 복새통을 이뤘다.

하지만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자녀를 시험장으로 들여보내고 한참을 교문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은 여전했다.

◇차분한 응원, 간절한 마음은 여전=이날 오전 6시 30분께 제26지구 10시험장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덕고, 제26지구 37시험장 북구 용봉동 경신여고, 제26지구 32시험장 남구 양림동 수피아여고 등 시험장의 교문 일대에는 교사들로 붐볐다. 이들은 일찍부터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둘씩 수험생들이 찾아오자 교사들은 추위조차 잊은 듯 얼굴이 환해졌다. 수험생들은 " 쌤(선생님), 출지 않으니나"며 교사에게 핫팩을 건네기도 했다. 교사들은 "너희들 걱정에 추운 것도 못 느꼈다. 시험 잘 보자"며 제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교사가 "긴장하지 않은 것 같다"며 수험생의 손을 잡아 주자 수험생은 "속으로는 떨려 죽겠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광덕고에서 만난 석산고 임상용(36), 장성수(38) 교사는 "제자들이 결전을 치르러 가는 것을 보니 가슴이 먹먹하다"며 "실수하지 않고 배웠던 대로 시험을 잘 치러야 할텐데 괜히 우리들이 더 마음 졸인다"고 했다.

수피아여고에서 제자들을 응원한 조대여고 교사 서지현(여·48)씨도 "수능에서 제자들의 희비가 갈리겠지만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고고 문세현(19)군의 어머니 김은경(여·49)씨는 광덕고 교문 너머로 자녀를 보낸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김씨는 "아이들 수능이 올해로 두 번째인데, 둘째 아들이 1년 동안 애원글면 공부 열심히 했다. 첫째 때보

교사들 학생 손 잡아주며 기원 부모들 시험장서 발걸음 못 떼 경찰, 지각 위기 수험생 긴급 수송 수능 도전 직장동료에게 선물도

다 더 떨린다. 아들이 수능 잘 치러서 역사와 관련된 학과로 진학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신여고에 딸을 보내준 김용훈(51)씨도 "아이를 데려다 줄 때는 몰랐는데 교문 앞에서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니 눈물이 난다. 만감이 교차해서 시험장으로 가는 아이 뒷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울먹였다.

◇'수능대박' 응원 방법도 가지가지=수피아여고에서는 자신만의 '부적'과 함께 등교한 수험생이 눈길을 끌었다.

한 수험생이 부모님의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조수석 창문으로 하얀 강아지(말티즈) 얼굴이 '쑥' 빠져나온 것이다. 수험생 이주현(19)양은 수차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잘 보고 올게" 각오를 다진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험장으로 향했다.

이양의 어머니 김혜연(48)씨는 "우리 집 강아지 '뽀뽀'는 딸에게 행운의 부적이다. 딸이 공부를 하다가 지치거나 환기가 필요할 때면 뽀뽀와 같이 산책하거나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곤 했다"며 "딸이 뽀뽀가 전해주는 에너지를 전달받아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직장동료를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들고 온 직장인도 있었다. 광주시 남구에서 영어강사를 하고 있는 박지현(여·26)씨는 수능에 도전한 직장동료에게 고급 초콜릿 한아름을 전달했다.

박씨는 "5년동안 함께 일한 직장동료가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수능에 도전한다"며 "직장과 공부를 병행하며 1년 내내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도 펼쳐진 '수험생 수송 작전'=올해도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거나 지각위기에 놓여 발을 동동 구른 수험생들의 모습은 여전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광주 13



16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무각사 대적광전에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수능 예불'을 올리고 있다.

명, 전남 119명의 수험생에게 특별 수송, 수험표 전달 등 도움을 줬다.

광주시 동구 소태역 일대에서 수십분씩 택시를 잡지 못한 수험생은 순찰차를 타고 북구의 시험장까지 이동했다. 한 수험생은 입실 마감시간 5분여를 앞두고 교통체증에 발목을 잡혔다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 순찰차를 타고 가까스로 입실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한 경찰관은 남구의 한 시험장 일대에서 바닥에 떨어진 수험표를 주웠다며 시험장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화순군에서는 수험생 112명이 탑승한 수송버스 3대가 시험장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경찰 에스코트를 받았다. 신안군에서는 수험생 탑승차량이고장나는 사태가 발생해 순찰차를 타고 무안군에 있는 시험장까지 50여km를 달려가기도 했다.

한 수험생은 시험장을 착각해 무안군 남악고를 찾아가다가 순찰차를 타고 8.4km 떨어진 목포시 마리아회고까지 달려 가까스로 제 시간에 입실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도 이외 할 게 없어" 학부모들 사찰로

간절한 마음으로 수능 대박 기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작되자 사찰 등 종교시설로 발길을 옮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수능대박'을 기원하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16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무각사에는 자녀들을 수능 시험장에 배려다준 뒤 곧장 사찰을 찾아온 30여명의 학부모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이날 무각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수능 예불'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학부모들은 애라는 마음에 예불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곳을 찾았다.

학부모들은 교문 앞에서 애써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는지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법당에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염없이 기도를 올리는 부모도 있었다. 연신 절을 올리며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수험생 부모도 한 마음으로 자

녀를 수능대박을 기원했다.

양창현(56)씨는 "삼수와 재수생인 딸(21)과 아들(20)이 시험장에 들어갔다. 교사와 의사를 꿈꾸고 있는 자녀를 응원하려고 수능기도 올리러 왔다"며 "뭐라도 힘이 돼 주고 싶어 한달여 전부터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무각사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김인심(여·70)씨는 평소에도 예불을 올리러 무각사를 자주 들렀지만, 오늘은 더욱 각별하다고 했다. 지난 1995년 아들이 수능을 본 데 이어 28년만에 손주까지 수능을 보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손주가 이과 쪽으로 꿈을 갖고 1년 동안 밤잠을 새 거며 공부했다 하니, 부처님께 잘 좀 도와주시라고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며 "예전에 아들이 수능 볼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다. 손주가 중요한 시험을 치른다니 괜히 더 애들하고 각별한 것 같다"고 웃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의붓딸 성폭행 계부 2심서 가중처벌 '징역 10년'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가중형(加重刑)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1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인 B양을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8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B양의 어머니와 사실혼관계로 같이 거주하다 지난 2021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딸을 교육하려다 빚어진 일이다', '딸이 거짓을 꾸며 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날짜를 모진 회식을 간 날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이 엇갈린다고 주장하나 회식 날짜가 변경돼 범행일시가 바뀌었을 뿐"이라며 피해자 진술이 엇갈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범행을 사과하는 내용의 음성메모를 보낸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A씨의 범행이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

담양서 여순사건 희생자 추정 유해 2구 발굴

담양에서 여순·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구가 발굴됐다.

전남도는 최근 담양군 대덕면 문화리 옥천약수터 일대에서 여순사건 관련 유해 2구와 탄피 2개를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가 발굴된 것은 '여순·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전남도는 문화리 옥천약수터 일대에서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발굴 청원이 발생한 데

따라 발굴 작업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이 유해가 국민보도연맹 구례지부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옥천약수터에서 '유해 발굴조사 개토제'를 열고 희생자를 기리는 제사를 올렸다.

한편 발굴 작업은 내년 4월까지 이어진다. 전남도는 유해를 발굴하면 우선 수습한 뒤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하며, 유족 간 유전자 대조를 거쳐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장 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